

4년 만의 신작소설 《낮선 사람들》로 돌아온 소설가 김영현

고통과 어둠을 응시하는 수도사의 눈으로



작가 김영현 씨에게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힘든 시기였다. 작가 이전에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험난한 시기를 오롯이 통과했던

그였기에 그의 문학에는 언제나 현장의 '고통'이 배어있었다. 그러나 그의 소설은 대부분의 운동권 소설이 가진 메마른 감성이나 생경스러운 구호의 나열 보다는 주인공의 내면에 천착하는 감성적 경향이 강했다. 1990년대 초에 그의 리얼리즘이 민중문학의 발전이나, 퇴보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것도 그래서였다.

이런 그이기에 신작 소설 《낯선 사람들》에 대해 독자들은 좀 의외일 수밖에 없다. “전직 마을금고 이사장 최문술이 살해된 사건은 일 년 내내 별일 없이 조용하던 이곳 소읍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전혀 ‘김영현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폭설》 이후 4년 만에 출간된 이번 신작 소설에서 작가 김영현 씨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서 초기에 작가로서 감당했던 주제들이 많이 달라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들은 혼돈의 상태를 겪고 있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욕망의 자유’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는데, 이 속에서 과연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내가 두어야 할 삶의 지향이 어디인가라는 문제는 궁극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소설은 그런 보편적이고 고전적인 질문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결과물입니다. 진중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독자들에게 재미를 주고 싶습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을 추적하는 추리소설 기법으로 쓰인 이 소설은 그의 말대로 “재미” 있다. 하지만 ‘선과 악’, ‘초월적 존재와 실존에 대한 고뇌’ 같은 철학적이고 신학적 질문에 대한 오랜 성찰의 결과물답게 ‘대작’의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이 작품을 언론에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비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피살된 아버지의 추악한 욕망이 남긴 한 편의 지옥도. 그 속을 얽혀 돌아가는 가족들, 피로 얼룩진 갈등을 풀어나가는 최선의 열쇠는 결국 ‘사랑’이다.

“실존주의적 의미에서 주인공 성연의 가족들은 서로에게 낯선 존재입니다. 자의에 의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던져진 존재로서의 자들이죠. 그 인물들이 ‘어떻게 사랑을 매개로 하나의 삶을 이루는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고전적 주제이긴 하지만 인간과 다른 종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가장 신비한 열쇠는 바로 ‘사랑’이니깐요. 그것이 소설에서, 성직자의 길을 가려던

성연이 누추한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계기이기도 하구요.”

지난 시절 그의 생(生)은 민중운동, 긴급 조치 위반, 구속, 고문 등의 단어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정신과 육신에 시간의 곁을 따라 때로는 희열을, 아픔을, 슬픔을 등을 새김했다. 시대의 문제를 감당하고 짊어진다 는 점에서 그에게 작가란 수도사와도 같은 존재이다. 지금은 실천문학사의 대표라는 번듯한 직함을 갖고 있지만 작가의 역할에 대한 그의 신념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고통이나 어둠을 응시하는 눈이 없으면 작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시대의 문제에 직면하고, 고민하고, 탐구하고 그것이 작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작가는 그 시대의 무당이며, 수도사입니다. 시대를 감당하고 짊어지고 떠돌고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작가’라는 명예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성찰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의 표현대로 “믿음이 가는 좋은 작가”인 그가 지금까지 써왔던 운동권의 얘기가 아닌 인간의 본질에 대한 내적인 탐구로 방향을 전환했다면 거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소설을 읽다보면 ‘혹시’라는 우려가 ‘역시’라는 안도로 바뀌는 것도 작가로서의 ‘김영현’이 주는 그 믿음 때문이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기자에게 “글을 쓸 시간의 확보가 절대적”이라며 “올해는 좀 더 많은 소설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는 그의 대답이 반가운 것도 혼돈에 빠진 우리 시대에 그의 문학이 갖는 믿음의 가능성에 기대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 **주필**